

어둠 속 빛줄기 같은...LED, 언어예술 되다

December 14, 2020 | 전지현 기자

Page 1 of 1



2020년 12월 14일 월요일
매일경제 A34

케니스 황금사자상 작가
1m 달하는 LED 기동 작품
코로나로 지친 사람들에게
희망·용기 주는 경구로 꾸며
빛에 따라 변하는 유화작품
수계화 신작 36점 전시도



어둠 속 빛줄기 같은... LED, 언어예술 되다



LED 경구 신작 '생생한 공상을 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 (사진 제공=이개원리더)

美개념미술가 제니 흠저 개인전

‘답습하게 심면 걱정할 것이 없다’
‘고독은 사람을 풍요롭게 한다’ ‘사소
한 지식이 오래간다’ ‘과식은 죄이다’
다...

구구절절 읊은 경구들 (Truisms)이
빛줄기가 되어 전시장을 밝혔다. 4m에
달하는 사각 LED(발광다이오드) 기
동은 7시간 동안 인상을 깨우는 경구들
번개처럼 내려꽂기도 하고, 빠른 속도
로 회전해 글자를 뒤바뀌게 만들기도
했다.

언어학 예술로 만든 미국 개념미술
가 제니 흠저 (70)가 한층 화려해진
LED 경구 신작 '생생한 공상을 하며 사
는 것이 중요하다'를 서울 국제갤러리
개념전에 설치했다. 지난해 말 국립현대
미술관 서울에 전시한 문학 LED 작
품 '당신을 위하여'는 여신의 상처와 고통
을 담은 김혜순·인강 시구를 차분히
계울러보냈다.

이번 개인전에서 LED 기동 작품을
둘러싼 대리석 벤치 4개에도 경구가 새
겨져 있다. '사람은 곁에서 출격하
다' '긍정적인 자체가 세상의 모든 변화
를 이끌어낸다' '행복은 그 무엇보다 중
요하다' '가장 신오한 것은 형언할 수
없는 말이다' 등이다. 코로나19로 우리
살에서 서서히 밀려나고 있는 '공정'과
'행복'이란 단어가 오랫동안 시선이 미

를렸다.

예초 율범에 개인전을 계획했다가
코로나19로 이제가 전시를 열게 된 작
가는 지친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싶었다. 개인전 주제도 LED 속공
제목과 같은 '생생한 공상을 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로 정했다. 공포에 질리
지 말고 상상의 나래를 펴며 위기를 견
디라는 의미도 다가온다. 이번 전시작
들도 생동감을 만산한다. 현란한 색채
로 작동하는 LED 작품 외에도 금박이
나 은박을 붙여 반짝거리는 유화 작품
들이 걸려 있다.

현재 미국 뉴욕주에 거주하고 있는
흠저는 영상 인터뷰를 통해 "지금 농장
에서 자기격리 중이다. 그래도 이곳에
순자의 장난감이라도 있어서 다행"이
라며 "전세계 수많은 사람이 고립스럽
게 죽어가는 모습은 지켜봐야만 하는
것이 가장 힘들다. 이번 전시에 코로나
19와 직접 연관이 있는 작품은 선보이
는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질문을 던지
고 있으니까 공감대를 이루기를 바란
다"고 밝혔다.

한국에 오지는 못했지만 그는 영상
회의를 통해 작품 설치 위치를 꼼꼼하
게 점검했다. 햇살이 들어오는 곳에 설
치해달라고 부탁한 '결열 회화' 연작
'XX 8'은 여러 층 유리 불감과 불라들

막으로 덧칠돼 빛의 변화에 따라 다채
로운 색을 감상할 수 있다. 화면에 조금
씩 드러나 있는 영어는 미국 정보 공개
법에 따라 공개된 정부 문서 일부다. 실
크스크린으로 문서를 리본에 입력한후
불감과 금박, 은박 등으로 뒤덮어 추상
화가 됐다. 아프가니스탄 보보가 미군
의 교통으로 사망한 영장을 지켜본 목
격자의 자필 진술서를 세긴 '결열 회
화' 연작 'cold water' 도 눈에 띈다.

'XX 8' 아래에는 '내가 원하는 것으
로부터 날 보호해줘'라는 경구가 새겨
진 대리석 의자 작품 'Survival: Pro
tect me'가 놓여 있다. 1992년작기가
뉴욕 맨해튼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띄
운 문장이기도 하다.

전시장 한 면을 가득 채운 수제화 신
작 36점은 감성적이다. 2016년 미국 대
선 당시 러시아 정부가 노년드 트럼프
후보의 당선을 도왔다는 의혹에 대한
연방수사국(FBI) 수사 결과를 담은
'물리(Mueller) 보고서'를 보고 답답
한 심정을 휘갈기고 흘려내리는 물감으
로 표현했다.

'할리우드 글린턴에 대한 추문' '궁극
의 죄악' 등 대담한 제목이 달려 있다.
오하이오대학에서 회화를 전공한 흠
저는 추상화로 실험을 맞춘 후 개념미
술에 전념해 1990년 제4회 베니스 비
엔날레 황금사자상을 받았다.

전지현기자